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18(수) / 총 3매(본문2, 첨부1)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담 당 자	•과장 박건수, 사무관 김종성, 주무관 이경순 •☎ (044)201-4602, 4606
	철도운영안전과		•과장 조현준, 서기관 성은하, 주무관 이미리 •☎ (044)201-4620, 4890
	철도시설안전과		•과장 김유진, 사무관 이성민, 주무관 전성진 •☎ (044)201-4624, 4627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1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7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사람 중심 · 현장 중심의 철도 구현...2조 5천여억원 투자 ‘2018 철도안전 시행계획 확정’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“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”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철도 구현을 위해 노후시설 개량, 종사자 중심 작업안내서 정비, 사물인터넷 기반 차량·시설관리 등 올해 철도안전 분야 정책방향을 담아 ‘2018년 철도안전 시행계획’을 확정했다.

○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‘철도안전 종합계획’*의 연차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, 철도공사, 교통안전공단, 서울교통공사,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25개 철도 유관기관**이 추진하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철도안전 목표와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계획이다.

* 1차 계획: '06년~'10년, 2차 계획: '11년~'15년, 3차 계획: '16~'20년

** 국토교통부, 철도운영자(18), 철도시설관리자(3), 철도전문기관(3)

□ 우리나라의 철도사고 건수는 유럽의 철도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, 국토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여 올해 대형사고(사망자 5명 이상) 제로화, 최근 3년 대비 철도사고는 15%, 철도 사망자는 5%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.

□ 우선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시설도 확충해 나간다.

- 오래된 수도권 노선의 설비를 집중 개량하고, 노후 도시철도의 시설도 개량하며, 노후 철도역을 증·개축하는 등 총 1조 6천여 억 원을 안전시설 확충에 투입하는 한편, 지진에 대비한 고속철도의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앞당겨서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.
- 광운대역 사고(17. 5), 온수역 사고(17. 12) 등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.
 - 모든 운영기관의 현장 작업안내서를 종사자 안전을 우선으로 전면 재정비하며, 주간 선로점검 시간(1시간)을 점차 확대하고, 철도시설 개량사업 등은 운행시간 종료 후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.
- 사물인터넷, 드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철도차량·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첨단화·과학화시켜 나간다.
 -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철도차량·시설의 이상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대응할 하고,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위험도가 높은 요소들을 사전에 예보하고 집중 관리해 나간다.
- 아울러, 철도안전 분야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.
 - 철도차량을 관리하는 조직·인력·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, 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수준평가제와 안전투자공시제를 도입한다.
 - 또한,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, 전문가·협회 등과의 정책 토론회, 우수사례를 공유·전파하기 위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철도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올해를 국토교통 안전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김종성 사무관(☎ 044-201-4602), 철도운영안전과 성은하 서기관(4620), 철도시설안전과 이성민 사무관(46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 추진과제	
①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의 정착	경영평가 안전강화, 안전투자공시·안전관리수준 평가 제도화 ('18.12) 작업책임자·운영안전관리자 역할 강화 및 위반행위 과태료 신설('18.10) 종사자 중심으로 작업매뉴얼 정비 및 현장 작업관리 절차 강화('18.12) 주간 점검·야간작업 확대, 집중작업 시행 등 운영 중 작업 최소화('18.9)
② 안전한 철도인프라 확충	노후 구조물 72개소, 전기·신호설비 811개소 개량 고속철도 내진보강 완료(일반·도시 : '19년), 낙석방호시설 67개소 설치 철도시설 성능평가제 도입 및 상호 운영성 제도화('18.3) 신설 35개 역사 B/F 인증 및 방호울타리 설치 확대(91km)
③ 국민이 안심하는 운행안전 확보	철도차량을 관리하는 조직·인력 등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('18.10) 노후 차량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및 개조승인제 도입('18.10) 관제 전원공급체계를 이중화하고 제2관제센터 건립방안 마련('18.10) 위험물 검사기준 및 취급·운송체계 마련 등 관리기준 신설('18.12)
④ 철도보안 ·재난대응 역량 강화	보안검색 인력·장비 보강 및 탐지견 도입 등 보안검색 고도화('18.6) 3D 공간 앱, 빅데이터 분석 통해 위험 人·物 사전감지 기반 구축('18.12) 비상매뉴얼의 현장적용성 강화 및 현장 맞춤형 대응훈련 강화('18.6) VR·AR을 활용한 이상대응 체험형 통합훈련시스템 시범 시행('18.12)
⑤ 철도안전산업 활성화	신호 국산화를 위한 성능·안전성 검증 및 영업선 시범사업('18.6~) IoT를 이용한 차량·시설 실시간 관리 시범사업 시행('18.6~) 철도종합시험선로, 완성차 시험센터 등 시험인프라 구축('18.12) 미래 핵심 철도차량 부품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·예타 추진('18.6)
⑥ 철도안전 정책 추진기반	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적·예방적 위험예보제·위험지도 수립·운영('18.8) 노·사·정 간담회(분기별),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('18.12) 등 거버넌스 확대 감독관의 기관별 상시점검체계 도입('18.3) 및 감독 정보화시스템 구축('18.11)